로컬플러스

김제농기센터, 토양검정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영농시기 전 토양검정을 통하여 재배 예정지 토양의 상태를 알아보고 시비처방에 맞춰 비료를 살포하여 작물의 재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토양검정시비처방서에는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유효규산(논토양기준)을 자신의 토양에 맞게 적정시비량으로 분석하여 발급한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을 심기 전 비료나 퇴비를 주지 않은 해당 농지(시설하우스 경우 동별) 5~10지점에서 겉흙을 1~2cm 제거한 뒤 10~15cm 깊이의 흙을 채취하여 1점의 시료가 500g~1kg정도 되게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가져오시면 15일이내에 분석 결과를 받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과수 농가의 경우 적수 12~15주를 선정한 후 나무의 가지 끝을 기준으로 30cm 안쪽 세 시점에서 30~40cm깊이까지 채취하면 된다.

올해 김제시는 4,800여점의 토양검정을 영농 시기별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농업인들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농가가 문의한 토양분석 결과는 토양환경시스템 '흙토람'(http://www.soil.rda.go.kr)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간이상수도 관리자 위촉

정읍시는 지난 18일 간이 상수도 관리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로부터 식수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을별 관리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마을별 간이상수도는 마을이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12명이 새롭게 마을 이장에 임명됨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 것이다.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줌은 물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이와 함께 당일 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3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28개소 총 31개소의 운영 관리인과 해당 면과 동지역 직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만경읍 여성의용소방대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김제시 만경읍 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7일 만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만경119안전센터주관으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만경읍 여성의용소방대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방생 위험이 높아져 산불예방에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함께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씨 취급 금지, 흡연금지 등 산불예방 실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산불 조심 캠페인은 여성의용소방대 주관으로 만경 시장통 및 주요 도로변에서 진행되었으며, 캠페인 전개와 함께 마을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마을 정화운동도 실시하였다.

서연종 만경읍장은 "따뜻한 봄철 건조한 날씨와 논 밭 누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졌지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여성의용소방대원들도 화재예방 철저 등을 홍보하여 지역민들이 화재 없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24명의 심의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36차 특구심의 위원회에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가 최종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 종자생명특구 지정

5년간 705억원 투입 골든시드 생산지원 등 10개 특화사업 진행

김제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24명의 심의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36차 특구심의 위원회에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가 최종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건식 시장은 특구사업 발표에서 "종자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특구 심의위원들의 엄정한 심사에서 사업아이템에 대한 호평과 함께 지자체 의지, 우수한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통과되었다.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사업은 5년간 총사업규모 705억원을 투입하여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등 4대전략으로 종자개발·생산·수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지원, 골든시드 생산지원, 종자전문 프론티어 양성 등 10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종자산업 관련 국가사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 선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이 기대되며, 특히 종자생명산업도시로서의 市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제시는 특구로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 2011년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이후부터 호남권종자처리센터 유치, 지영고 마이스터고 지정 등 종자산업 인프라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 건의추진상황 점검

155건 처리 계획 논의

정읍시는 지난 18일 2016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해당부서 과장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3개 읍면동 민생현장방문과 시민과의 대화 시 수렴한 155건(건설과 99건, 도시과 12건, 복지여성과 10건, 기타 34건)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상황 점검결과 현재 완료 9건, 추진 중 23건, 추진예정 73건, 추진불가 29건, 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이전 2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도 부서별 건의사항 처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 시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며 "건의사항의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십분 헤아려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수반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추경과 2017년 예산확보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추진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에 앞으로 더욱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 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소방도로 개설, 경로당 신축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반 시설 요구가 많았지만 ▲서남권 추모공원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정읍시만의 특색 있는 이정표로 교체해 줄 것 ▲정읍을 대표하는 정읍 9경을 재선정하자는 제안과 같은 발전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민과의 대화가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주요기관장 새만금 현장 방문

새만금사업단과 함께 비전공유

새만금 사업단(단장 박종대)이 지난 17일 주최한 새만금 현장방문에 이건식 김제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의회의장, 김효순 김제교육장 등 김제시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현장을 돌아보며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관장 일행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드넓은 바다위에 위용을 드러낸 새만금방조제를 전망한 후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해 새만금간척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첨단 기술력으로 이뤄낸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후 동진1공구를 찾아 동서2축 간선도로와 방수제 공사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돌아봤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린 만큼, 이제 김제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수목원, 대규모농어업회사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김제시가 명실상부한 새만금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부안군의 관련 정책 설명회 및 집중 상담, 제4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등으로 이어졌다.

부안군, 서울서 귀농귀촌 유치 나서

도 수도권 홍보관에서 귀농예정자 대상 정책 설명

부안군이 전북도 수도권 홍보관을 찾아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를 하려고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 전북도 수도권 홍보관(서초구 방배동)에서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도시민 유치활동을 펼쳤다.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유치활동은 수도권의 귀농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부안군의 관련 정책 설명회 및 집중 상담, 제4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유치활동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부안군 정책 설명회 및 집중 상담, 제4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보안면으로 귀농을 예정하고 교육에 참여한 권재철씨는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많이 갖도록 해 귀농에 대한 두려움을 일소시키고 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5차례 가량의 수도권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식전달과 부안군 정책 및 특화작목 등에 대한 집중 홍보로 귀농귀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비귀농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도 귀농귀촌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중상담 67명, 정책교육 158명이 참석해 서울·경기지역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의 새 희망 정착 지로 부안군에 깊은 관심은 보였다. /부안=이옥수 기자